

2013학년도 숭실대학교 모의 논술고사(경상계)

※ 주의사항(인문, 경상, 자연 공통사항)

- ① 답안지에 제목과 소제목을 달지 마시오.
- ②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마시오.
- ③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표시(“ ”)를 하시오.
- ④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본문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 ⑤ **연필 또는 흑색필기구**만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그 이외 색 필기구는 부정행위에 해당).

문제1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요지를 쓰고, 그 중 하나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800 ± 80자, 40점)

(가) 15~18세기에 사람들이 먹는 기본음식은 주로 식물성 음식이었다. 이것은 콜럼버스 발견 이전의 아메리카나 블랙 아프리카에서는 자명한 진리였으며, 벼를 재배하는 아시아 문명권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명백한 사실이다. 극동지방에서 일찍이 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된 것도 육식을 아주 조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단지 칼로리 수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결정을 한다면 똑같은 면적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목축보다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곡물 경작은 목축보다도 10~20배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벼를 재배하는 나라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동물을 먹이는 데 쓰이는 땅이 여기에서는 직접 사람을 먹이는데 쓰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수준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할 때마다 식물성 음식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것은 15~18세기만의 일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있는 일이다. 곡물이나 고기냐의 선택은 인구수에 달린 것이다. 이것이 물질문명의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다.

(나) Today's neighborhood barbecue recreates a world of sharing and hospitality that becomes rarer each year. We regard as a curiosity the behavior of hunters in exotic regions. But every year millions of North Americans take to the woods and lakes to kill a wide variety of animals — with a difference, of course: What hunters do for survival we do for sport (and also for proof of masculinity, for male bonding, and for various psychological rewards). Like hunters, too, we stuff ourselves almost whenever food is available. Nibbling on a roasted ear of maize gives us, in addition to nutrients, the satisfaction of participating in culturally simpler ways. A festive meal, however, is still thought of in Victorian terms, with the dominant male officiating over the roast, the dominant female apportioning vegetables, the extended family gathered around the table, with everything in its proper place — a revered picture, as indeed it was so painted by Norman Rockwell, yet one that becomes less accurate with each year that passes.

(다) 부자들의 부엌에서는 모든 요리가, 때로는 음료까지도 양념의 첨가로 더욱 고급화되었다. 예를 들면 계피 맛이 나는 달콤한 양념 포도주인 ‘히포크라스’가 있었다. 그런데 후추, 육두구 열매, 정향, 계피 등의 과다한 양념 사용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음식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후추가 식사를 하는 사람의 점막을 더 강하게 자극할수록 주인에 대한 존경이 더 높아진다는 볼프강 쉬펠부쉬의 표현은 다소 과장된 것일지언정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에도 특정한 사회적 그룹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계선을 긋고 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그 음식이 구하기 쉬워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그 음식은 즉각 매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경계를 긋는 특징물이 되지 못한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의 엘리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구별될 만큼 아주 간단한 양념과 요리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되돌아가서 심지어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던 그런 ‘새로운’ 음식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콩과 식물, 내장, 순대, 야생마늘 수프, 곡물가루 푸딩 등이 그것으로 아주 훌륭한 식당에서 다시 최고급 요리로 등장하고 있다.

(라)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에서도 건강한 먹을거리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알라를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슬림은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음식의 절제에 대한 이슬람교의 입장을 가장 잘 표명한 것이 무슬림의 5대 의무 사항 중 하나인 라마단이다. 라마단 달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달 동안 금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식을 통해 무슬림은 절제력과 인내심을 배울 수 있다. 먹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인 만큼 어떤 음식을 먹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슬람교에서는 인간에게 허용된 음식을 할랄, 금지되는 음식을 하람, 그리고 권장되지 않는 음식을 마크루라고 규정하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무슬림의 가장 기본적 의무사항으로 간주된다. 꾸란 제 5장 3절에는 무슬림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즉 하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람 음식에는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느님의 이름으로 잡은 고기가 아닌 것, 교살된 것과 때려잡은 것과 떨어져서 죽은 것과 서로 싸워서 죽은 것과 다른 야생의 일부를 먹어버린 나머지와 우상에 제물로 바쳤던 것과 화살에 점성을 걸고 잡은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금지된 음식이더라도 기아의 상태에서 생명이 위험할 때, 목숨을 구할 때, 또는 무의식중에 먹었을 때는 허용하는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

<문제 1 해설>

▶출제의도

일반적으로 음식은 너무나 친숙한 대상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여긴다. 인간이 생명체로서의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당연한 욕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매순간 마시는 공기와는 달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람은 사람이 먹는 것 그 자체이다(Der Mensch ist was er ißt)”라는 독일속담처럼, 한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에는 그 인간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요구사항은 음식의 여러 가지 의미를 제시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신이 선택한 지문의 논지를 보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상을 좀 더 심층적으로 바라보는 사고력,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력,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지를 보충할 수 있는 응용력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의 개요

제시문 (가)는, 거칠게 요약하면, 음식이 지닌 경제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채식을 하느냐 육식을 하느냐의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주로 기호의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선택이 그 사회의 인구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수에 의해 그 선택이 좌우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경제적 효율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은 인구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증가한 사회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그 사회구성원이 식물성음식에 크게 의존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똑같은 면적의 땅에서는 목축보다 곡물 재배가 보다 월등히 높은 칼로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므로 (가)는 음식과 인구증가와의 경제적 인과관계를 논하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밑에는 보다 의미심장한 전제가 깔려있다. 즉 역사를 떠받치고 있는(또는 역사의 기본구조인) 물질문명, 내지 물질생활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음식이라는 것과 어떤 문명이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느냐가 그 문명의 기본적 성격을 규정한다는 점을 기본전제로 깔고, 자신의 논지를 펴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유럽처럼 일찍부터 고기를 주식으로 선택했다면, 그에 따라 유럽의 농업구조—목축과 곡물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농업구조—가 결정되고, 적어도 하층민의 곡물소비량이 늘고 고기소비량이 크게 감소되어야만 인구가 증가하는 등등의 역사적 특징(예컨대 서유럽에서는 16세기 중반부터 육류소비의 제약이 뚜렷해진다)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곡물이나 고기냐의 선택이 그런 선택을 한 특정문명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먹는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리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가는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그를 둘러싼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음식의 재료를 준비하고 그것을 요리로 만들어서 먹는 행위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인류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3년생 내지 졸업생이 해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수준의 영어문장이지만, 음식문화가 사회마다 다른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음식문화 그 자체가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과거의 사냥꾼이 생존을 위해 사냥했다면 오늘날의 사냥은 주로 스포츠, 남성다움의 과시, 남성끼리의 결속감의 확인, 그리고 심리적 보상을 위해서이고, 또 이웃끼리 바비큐를 해먹는 것은 나눔과 친근한 인간관계를 재창조하는 문화적 행위이고, 또 명절날 온 가족이 잘 차려놓은 식탁의 정해진 자리에 둘러 앉아 남자 어른(아버지)이 고기를 나누어주고, 여자어른(어머니)이 야채를 나누어주는 식사예절은 빅토리아식(=전통적 내지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확인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행위들이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관습이 점점 줄어들고 희귀해져가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음식문화를 통해 서양(특히 미국)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동시에 짚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과거가 공동체 지향적이었다면 현대는 이전에 비해 훨씬 개인적인 사회가 되었음을 음식문화의 변화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떤 음식 내지 음식문화가 한 사회의 사회적 또는 문화적 성격을 드러내는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다)는 음식이 지닌 구별 짓기 기능, 즉 사회적으로 경계선 긋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음식은 하나의 사회적 집단이 다른 집단과 자신의 집단을 구별하기 위해 선택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상류계층은 자신들이 즐기는 음식을 보통 사람들도 좋아하게 되면, 바로 다른 음식을 찾는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던 귀한 음식이 마침내 일반 대중에게 도달했을 때 갑자기 그 소비량이 폭증한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식욕이 폭발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일단 대중화하고(“명예의 상실”과 “확산”이라는 이중의 뜻에서)나면 이 음식은 곧 매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일종의 포만한 상태에 이른다.”라는 언명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 셈이고, 이를 조금 확대해석하면, 음식을 둘러싸고도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셈이다. 여하튼 상류층들은 자신들을 보통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 부단히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며, 요즘에는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즐기던 음식마저 선택하는 경향까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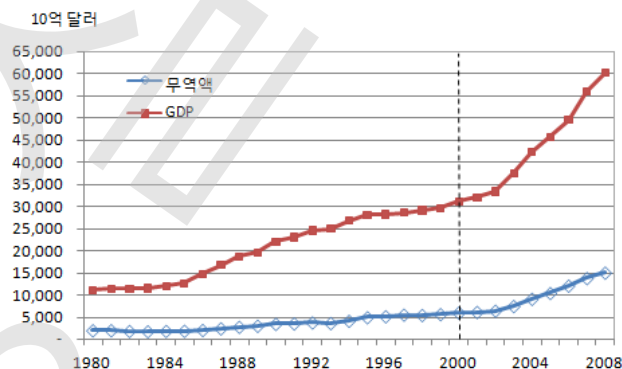
제시문 (라)는 음식과 종교의 관련성을 살피고 있는 글이다. 단적으로, “이슬람의 관점에서 보면 먹는 것은 순전히 종교적 행위이다.” (향후 20년 내에 전 세계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슬림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려면 이슬람종교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때때로 종교는 사람들이 음식을 선택하고 조리하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금식이 좋은 예인데, 구체적으로 기독교권에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순절에 대구를 먹음으로써 “유럽에서 가장 수치맞는 일은 대구잡이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대구소비량이 늘었다. 아울러, 종교와 음식의 관련성은 그 사회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위상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시문은 이슬람을 예로 들어, 음식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 음식 종류의 선택 등에 미치는 종교의 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종교와 음식의 관련성의 예를 우리사회에서 찾아내는 수험생들의 능력이 (라)를 선택한 수험생의 답안지의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이다.

▶ 평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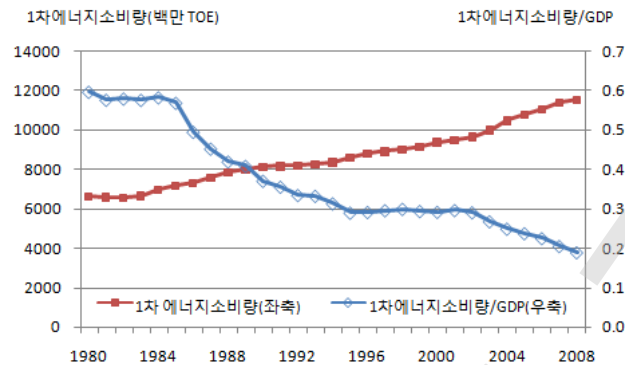
독해력(40%)	제시문 네 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통합적 사고력과 응용력(40%)	제시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합한 예를 찾아내어, 제시문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
구성 및 표현력(20%)	글의 유기적 구성, 정확한 문장 표현, 적절한 분량, 맞춤법 및 원고지 사용법

문제 2 [그림 1], [그림 2], 그리고 [그림 3]을 이용하여 제시문 (가), (나)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1,000 ± 100자, 6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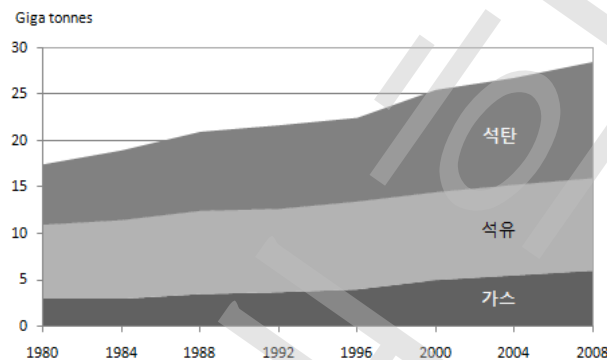
[그림 1] 세계 무역액과 GDP



[그림 2] 1차 에너지 소비량과 1차 에너지소비량/GDP



[그림 3] 이산화탄소 배출량



※ [그림 2]

- 1차 에너지 소비량 = 화석연료 소비량.
- TOE = 각 에너지원(연료)의 발열량에 기초하여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석유환산톤임.

(가) 무역은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가능성을 높여준다. 무역은 제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가장 낮은 비용과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생산 활동에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국제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역은 각국의 성장의 제약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제공하며, 소득의 증가를 통해 국가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다. 이러한 무역을 통한 성장은 기업에게 친환경 기술 분야의 투자를 위한 재원을 제공하고, 정부에게는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역위주의 성장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역을 통한 시장의 확대와 성장은 희소한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의 가속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을 통한 경제활동의 확대와 더 많은 제품의 이동은 공해, 독성 및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지구환경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긍정적인 환경효과를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정책의 수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무역은 생산입자와 생산 및 소비활동 수준을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오염효과가 다른 나라들 보다 적은 분야가 있다. 그러한 분야에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면 그 국가의 환경은 더 잘 보존될 수 있으며, 국제무역이 없다면 환경오염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국제 분업체제는 개별국가의 환경상태가 아니라 낮은 생산비용이라는 기준에 따라 형성되고 있으며, 또한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선진국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그들의 환경상태는 무시한 채 많은 환경오염유발 상품들을 제조하고 있다. 따라서 제3세계 국가들의 환경은 더 심하게 파괴될 것이며 환경오염유발 상품 수출국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끝>

<문제2 해설>

▶출제의도

오늘날 세계화시대 속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제시장의 효율성과 경제성장에 대해 인정하지만, 무역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부정적 측면 중 환경보호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는 중요한 이슈이다. 제시문 (가)와 (나)는 무역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문제의 요구사항은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문제에 주어진 [그림 1], [그림 2], [그림 3]을 이용하여 자신의 논지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이다.

▶제시문의 개요

▶ 제시문 (가)는 적절한 환경정책의 수행이 전제된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동시에 환경보호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자유무역의 성장은 경제활동을 확대시켜 많은 제품의 이동을 유발하고, 희소자원의 고갈을 가속화하여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유발할 수밖에 없지만, 환경정책을 수행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고, 무역을 통해 발생한 소득의 증가로 환경보호를 위해 투자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으므로 자유무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제시문 (나)는 개별국가의 환경상태를 고려하여 국제 분업을 실시한다면 오히려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지만, 오늘날의 국제 분업체제는 이러한 고려 없이 낮은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어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시문(나)를 통해서 오늘날의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논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림 1]은 세계무역액과 GDP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무역액이 증가함에 따라 GDP가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 [그림 2]는 1차 에너지 소비량과 GDP당 1차 에너지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를 보면,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반해 GDP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1차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력도 함께 성장하여 환경오염을 극복할 수 있는 지출가능성이 증대됨을 알 수 있다.

▶ [그림 3]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 무역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직접적인 관계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림 1]을 통해 무역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평가항목

이해력(20%)	제시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분석력(40%)	제시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비교분석 능력
통합적 사고력과 적용능력(30%)	제시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적용시켜 논지를 이끌어가는 능력
구성 및 표현력(10%)	문장표현, 분량, 맞춤법 및 원고지 사용법